

(왼쪽부터)저자 정인열 목사, 박동건 목사.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요한계시록’ 발간 돼 “요한계시록 공부해 복음·말씀으로 무장해야”

평신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요한계시록’이 발간됐다.

이 책은 북미주개척교회 교단(CRC) 목회자인 정인열·박동건 공저로, 저자들은 책 머리말에서 “사실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곡해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왜곡된 요한계시록 해석들이 기성 교회에 난무하고, 대부분 충실하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칼빈도 다른 주석은 다 쓰면서 요한계시록만은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자들은 물론이고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의 연구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저자들은 “한국교회의 초창기에 한국에 들어 온 선교사들의 다양한 신학배경에 근거한 가르침과 한국교회가 수시로 연합하고 나뉘지는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자연스럽게 여러 종류의 종말론을 수용하게 됨으로써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으로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요한계시록을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기피하여왔다. 반면에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곡해하여 자기들의 입장을 내세우는데 사용함으로써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는데도 교회들이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교회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본서는 목회하는 중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열심을 내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하면서 필자들의 남은 생애에 최선을 다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내놓고자 쓰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목회자의 눈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미 출판된 많은 학자들의 자료들을 참조하여 일반 성도들이 쉽게 읽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교회성도들과 목회를 하는 후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으로 큰 용기를 내어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여러분의 지도와 도움을 얻어 이 내용들을 계속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는 성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기고 강력히 추천한다고 밝혔다. 책은 현재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의 213-326-6193(정인열 목사), 562-650-4442(박동건 목사)

미국 땅 젊은 세대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 나라 군사로 훈련시키며,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할 하이어콜링 컨퍼런스(Higher Calling Conference) 2018 집회가 다가오고 있다. “Unashamed”(로마서1:16)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하이어콜링 집회는 소명을 잃어버린 대학정년들이 영적 축제를 통해,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비전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사는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별로 각기 다른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하이어콜링은 12월 19-21일에, 중고등학생을 위한 유스 컨퍼런스(Youth Conference)는 그다음 주인 12월 27-29일에 열리며, 장소는 샌디에고 타운 컨트리 호텔(San Diego Town & Country Hotel)이다. 등록비는 200불이며 각 교회마다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과거에 열렸던 하이어 콜링 컨퍼런스 모습.

하이어콜링 2018 “Unashamed” 주제로 열린다

미국 땅 젊은 세대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 나라 군사로 훈련시키며,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할 하이어콜링 컨퍼런스(Higher Calling Conference) 2018 집회가 다가오고 있다.

“Unashamed”(로마서1:16)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하이어콜링 집회는 소명을 잃어버린 대학정년들이 영적 축제를 통해,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비전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사는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별로 각기 다른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하이어콜링은 12월 19-21일에, 중고등학생을 위한 유스 컨퍼런스(Youth Conference)는 그다음 주인 12월 27-29일에 열리며, 장소는 샌디에고 타운 컨트리 호텔(San Diego Town & Country Hotel)이다. 등록비는 200불이며 각 교회마다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주요 강사로는 유진 조(Senior Pastor of Quest Church), 데이빗 박(Traveling Speaker), 영리(SOON Movement Field Ministry Director), 케빈 영(Cru High School

ministry)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아침, 저녁 대집회, 시드오브워십(Seed of Worship)공연, 선택특강, 전도강의 및 훈련, CCM & CCD 페스티벌, HC 올림픽, 교회별 팀 빌딩 타임, Praise & Worship by Undig Tour 등이 준비되고 있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송정명 목사)주최하고, SOON Movement(KCCC)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교회가 연합해 진행된다. 행사의 실행총무를 맡고 있는 SOON Movement(KCCC)의 커뮤니티 사역 담당 이기송 목사는 “차세대를 위해서는 마음을 함해야 할 때이다. 남가주에 일천 여개의 교회가 있지만, 젊은이들에게는 그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장이 그리 많지 않다. 젊은이들의 영적축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 때”라며 “젊은이들을 자신의 자식만큼 귀히 여기고 후원해 주어야 할 때다. 타이타닉처럼 배 자체가 침몰되면, 배 안에 1등석이고 3등석이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음 세대의 믿음의 침몰을 막고 믿음이 세워지고 견고해지도록 함께 격려하고 협력해야 한다.” 고 밝혔다.

**미용자격증
 미용고급기술**
 김인태
한인국가대표 아시아 챔피언 출신 강사 직강
QCA Beauty College
T.213-232-3837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 주일에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www.davidlimlaw.com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노아처럼 온전함을 힘입자”

새일교회 창립 7주년 전교인 수련회, 강사에 안기영 목사



안기영 목사가 새일교회 전교인 수련회에 강사로 섰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교회 새일교회(정병노 담임목사)는 창립 7주년을 맞아 8월 31일(금)부터 9월 2일(주일)까지 ‘마음을 기경하라’라는 주제로 전교인 수련회를 열었다. 강사로는 안기영 목사(광주 지산교회 원로)가 나섰다. 정병노 목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전 교인이 뜨겁게 참여했다”면서 “교회 창립 7주년을 맞아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고 말했다. 2일 주일예배 말씀을 전한 안기영 목사는 창세기 6장 5-12절을 본문으로 “은혜를 입었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다. 안 목사는 “성경에 최초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노아다. 목회를 은퇴하고 지난 오랜 세월을 돌아보니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나 지금의 때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악한 시대에 살고있다”면서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야 한다”고 강

조했다. 그는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패역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12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면서 “당대에 완전한자(히브리말로 온전한 자, 하나님께 비난함을 받은 일 없는 자)였던 노아를 닮아 하나님께 인정 받는 교회가 되라”고 권면했다. 한편, 새일교회는 10월 7일 창립 주일을 앞두고 선교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예정이다.

한인가정상담소

제 35회 연례 기금모금 만찬 9월 19일 오후 6시 태글란 컴플렉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 정 조 소장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는 오는 19일 오후 6시에 ‘제 35회 연례 기금모금 만찬(KFAM’s 35th Anniversary Fundraising Gala)’을 개최한다. 할리우드에 있는 태글란 컴플렉스(Taglyan Complex)에서 열리는 올해 기금모금 만찬의 주제는 ‘35주년 기념-함께 걸은 여정(Share the Journey - Celebrating 35 Years)’이다. 1983년 설립 이래 미주 한인사회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걸어온 한인가정상담소의 창립 3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았다. 기조연설자로는 2006년 LA 일가족 사망사건을 겪고 그 충격을 딛고 일어 선 김빛나(28·영문명 Binna Kim) 씨를 초청했다.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로 총상 후유증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홀로서기까지의 과정과 힘든 상황 가운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함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 할 예정이다. 당일 행사에는 한인가정상담소 동지찾기 프로그램 후원자인 배우 신애라씨, LA 시의회 데이빗 류 시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한인가정상담소 발전에 공헌을 한 벤자

민 흥 전 나라은행장, 박병철 에베레스트 트레이딩 회장, 제인 정 ‘제인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영예의 인물(Honoree)로 선정한다. 한인 및 주류 기업들이 기금모금에 동참하는 의미로 후원한 60여가지의 다양한 물품이나 티켓 등은 사일런 옥션(Silent Auction)을 통해 판매한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 정 조 소장은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35년간 한인사회의 관심과 후원 덕분에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고, 한인사회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도움이 필요하지 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연례 기금모금 만찬은 बैं크 오브 로프은행이 타이틀 스폰서, 샌드케번 컨트리 클럽, 제이미스 서비스 등이 후원한다. 티켓은 한인가정상담소 홈페이지(www.kfamla.org)에서 구입 가능하며, 후원 및 기타 문의는 213-235-4848, mlee@kfamla.org 로 하면 된다.

남가주장로협, 제 12회 사랑의 찬양제 개최

모금된 기금으로 불우이웃과 선교지 후원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회장 김용식 장로)가 오는 16일 오후 5시 30분 충현선교교회(민중기 목사)에서 제12회 선교와 이웃돕기 위한 사랑의 찬양제를 개최한다. 이 찬양제로 모금된 기금은 불우 이웃, 선교지를 돕는 데에 사용된다. 이번 음악회에는 남가주장로성가단, 목사장로부부찬양단, 미주 여성코랄, 남가주사랑의교회, 나성성결교회, 오렌지미션콰이어, 대광OB코랄, 남가주장로성가단중창단, 정신동문코러스,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여성찬양대, 충현선교교회 등이 참여한다. 김용식 회장은 “이번 사랑의 찬



(왼쪽부터) 노수길 부회장, 김용식 회장, 김영균 수석부회장

양제를 여는 것은 불우한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다. 모아진 성금을 오는 11월 총회 때 이웃들에 전달하려고 한다”며

“좋은 뜻에서 찬양제를 올해도 진행하게 되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문의) 818-522-2780, 909-319-2158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213)531-7215, (909)993-3028

고봉준 목사 초청 특별간증집회 연약함과 고통 중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교정 선교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꿀통목사의 전도행전 1,2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화같은 이야기의’의 저자 주인공 고봉준 목사를 초청해 간증집회를 갖습니다. 집회일정 9월 9일(주일) 설만한 물가 교회(담임 정충일 목사) 오전 11:00 4012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18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한국 교회의 수난 (V)

일제 통치 35년을 통해 일본 교회가 자기 나라의 한국 식민화 정책을 어떻게 생각했으며 어떤 태도를 지녔느냐 하는 문제는 같은 신앙인인 우리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소위 '민족주의와 기독교'라는 큰 틀 속에서 가해자의 입장에 선 일본 교회와 피해자 입장에 선 조선 교회와의 관계라는 특별한 차지에서 무척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민족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기독교

우리는 일본 교회가 일제의 아시아 식민 정책을 뒷받침하였고, 총명한 황국신민으로 자기 나라 정책에 충실한 주구(走狗) 노릇을 한 사실에서 민족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기독교의 참담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나치스 정권을 지지했던 독일 교회와 더불어 일본 교회의 행태는 왜곡된 역사의 진면목을 보여 준다.

일부 양심 있는 일본의 기독교자들이 일제의 정책을 비판했고 신사참배나 천황숭배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체로 개인이나 교회가 이에 동참한 사실에서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기독교자들의 오류를 엿볼 수 있다.

일본 조합교회(組舍教會)를 이식하려는 시도

일본 교회는 조선 교회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일본 교회에 흡수시킬 계획을 세워 의도적으로 일본 조합교회(組舍教會)를 조선에 이식시킬 것을 획책하였다. 한일병탄이 되던 1910년 일본 조합교회 제26차 연차대회(年次大會)는 조선 선교에 착수하기로 결의하였다. 조합교회에서 한국 선교에 앞장선 이는 도리상길(渡瀨常吉)이다. 그는 1899년 서울에 경성학당(京城學堂)을 세워 한국 아동교육에 힘쓰다 조합교회 선교가 시작되자 이 일에 치중하였다. 1911년 서울에 한양(漢陽)교회, 평양에 기성(基城)교회를 설립하였고, 1912년에는 전국에 16개 교회가 일본의 조합교회에 가입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이 교회에 비밀리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은밀히 이 교회 확장을 뒷받침해 주었다.

총독부는 한일병탄 직후 이 교회에 64원을 비밀리에 보조하였고, 그 후 매년 6천 원을 1921년까지 보조하다 3·1 독립운동 후 끊어 버렸다. 이에 따라 조합교회의 한국전도 사업도 끝을 맺었다.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그 원인에 대해 한국에 있던 일본인 기독교인들은 선교사들을 비난하고 독립운동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비난하면서 일제 군대나 경찰의 만행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선 회중교회의 창설

3·1 독립운동을 통해 한국인의 독립의지와 일제에 대한 저항을 확인한 후 1921년 9월 한국 교회의 일본 조합교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들은 일본 조합교회로부터 자치를 선언하고 조선 회중교회(會衆教會)라는 이름으로 새 교단을 창설하였다. 다음 달 창립총회가 열려 회장에 유일선(柳一宣), 부회장에 차학연(車學淵)을 선출하고, 이 교회의 신조를 공포하였다. 이 신조는 '자율적 신앙에 충실을 도모하여 진보적 사상을 고조하되 인격의 존양(存養)과 사회의 혁신을 기한다.'라 하여 기독교적 요소가 전혀 없음을 보여 준다. 이 교회는 또 자제단(自制團)이란 것을 만들어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을 억제 하려는 운동을 일으키려 했으나 가입하는 단원이 없자 흐지부지 없어지고 말았다. 마지막에는 교회 자체도 유명무실한 교회로 전락되어 꼬리를 감추고 말았다.

한국인들이 배제되고 일본인들만 구성된 조합교회는 해방이 될 때까지 명맥만 유지하다 모든 건물을 장로교회에 넘겨주고 일본으로 건너감으로써 그들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민족의 수탈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편협한 민족교회의 오도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인류 보편의 행복과 정의 실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기독교 근본 진리를 수호하고 실행하는 데서 비로소 기독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진리를 일본 조합교회가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서 행한 모습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분파 운동의 전개

이런 일제의 간교한 교회 분열과 파쇄 작전 와중에 한국 교회 내에서는 서서히 분파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최초로 불거진 것이 최중진의 자유교회 및 기타 자유교회운동이다.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성장할 때 언제나 교회 안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법이다. 이제 겨우 노회를 창립하고 총회도 창립하지 못한 때에 교회 안에서는 벌써 분열의 비극이 움트기 시작하였다. 밖으로는 일제의 교회에 대한 억압이 가일층 증가되고 있어 교회의 온 힘을 결집해서 항일 대열에 서도 부족한 지경에, 약한 교회 안에서 사소한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는 불행한 사태가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최초로 교회의 분열이 일어난 곳은 전북 대리회(代理會)지역으로, 1910년 최중진(崔重珍) 목사가 장로교회를 탈퇴하여 자유교회(自由教會)를 설립해 나가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다. 최중진은 호남 지역의 제1호 목사로 이 지역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그는 1910년 1월 전주에서 모이는 전라 대리회에 다섯 가지 요구를 하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독립하여 자주(自主)교회를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최중진이 제출한 다섯 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일교인에 대한 현 교회의 규율이 엄격하니 이를 폐지하고 학습

인을 세워 누구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할 것. 2. 군산 지방으로 편입시킨 부안 지방은 나의 지역에 되돌려 줄 것과 무장도 가능하면 나에게 맡겨줄 것(일은 믿음과 역량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함). 3. 나의 지역에 중등학교 하나를 세워 교육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 4. 교회마다 상구위원 2인씩을 두어 교회 이름으로 가난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구제하도록 할 것. 5. 집 한 채를 사주어 선교하는 일에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었다.

전라 대리회가 이런 최중진의 제의를 거부하자 그는 전라 대리회장 선교사 불(W.F.Bull) 앞으로 편지를 보내 '대한예수교자유회 목사'라 칭하면서 교회를 갈라 자유교회임을 선언하였다.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킨 이유는 그가 내세운 이유보다 선교사들에 대한 불만과 적개심 때문이다. 그는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 선교부가 없고, 선교부가 경영하는 학교나 병원이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 선교사들이 받는 월급과 한국인 목사가 받는 월급에 지나치게 편차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 최중진은 결국 교회로부터 분열하여 독립교회를 만들어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는 술 마시는 자, 첩 있는 자 등을 가리지 않고 회원으로 받아 교회의 도덕적 기준을 여지없이 추락시켜 버리고 말았다. 그는 군산, 광주 지역에게서 그 손을 뻗쳐 20여 개의 그룹을 이끌고 나갔다. 그는 사기죄로 체포되어 2년간 감옥살이를 한 후 일본 회중교회에서 많은 월급을 주자 그곳으로 합류하여 버리고 말았다.

자유교회운동의 쇠락

최중진의 자유교회는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의 지배 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립정신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순전히 그 지역 선교사들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동기가 되어 비롯되었다. 그의 자유교회는 결국 교회와 민족을 저버리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는 결국 목회를 포기하고 노동 운동과 평형운동(平衡運動: 백성들의 차별 금지 운동)을 일으켜 이 일에 전념하였다 1911년 대리회가 독노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자유교회로 나간 교회들이 다섯 개로 돌아왔고 자유교회는 점차 없어진다고 보고하였다. 1911년 평북 대리회 지역의 의주군(義

州郡) 노북(盧北)교회 영수 김원유(金元瑜)와 강계(江界)교회의 장로 차학연(車學淵)이 선교사의 처사에 불복하고 '자유교회'를 분립하자 수백 명의 교인들이 이에 동조하여 떠나갔다. 교회에 주는 피해가 극심하므로 양전백(梁甸伯) 목사가 권면하고 종용하였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자유교회운동은 그 외에도 1923년 전남 장성군 월평(月坪)교회 백용기(白容基)의 '자치교', 충북 보은(報恩)의 이재식(李再植) 전도사, 경기도 고양(高陽)의 이은우(李恩雨), 평양의 이규찬(李奎燦) 등에 의해 부분적으로 파생되었으나 모두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스스로 소멸해 버리고 말았다.

자유주의 신학적 설교의 등장

한국 장로교회 안에서 최초로 자유주의 신학을 부르짖고 나선 사람은 황해도 봉산(鳳山) 지방의 김장호(金庄鎬) 목사였다. 김장호는 1905년 미국 장로교 선교사 쿤스(W.Koons)를 통해 기독교에 입문하였고 1909년 평양 장로회신학교에 입학하여 1914년 7회로 졸업했다. 그리고 그 해 6월 황해도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2월부터 봉산군 산수면 신원(新院)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김장호는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자유주의신학의 주장에 따라 설교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을 갈대밭 사이를 건넌 것으로, 예수의 오병이 어(五餅二魚)의 기적을 군중들이 도사락을 싸운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대해 1916년 6월 황해도회는 그의 성경해석이 불합리하다고 경고하고 총대 자격을 박탈하였다.

1918년 7월 노회는 김장호가 '성경진리를 위반하여 교인을 인도함을 인하여 6개월 간 휴직처분'시키고 선교사 헌트로 신원교회를 돌보게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장호가 노회의 결의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목회를 하자 노회는 12월에 모인 15회 정기회에서 노회 권고에 대한 불복을 이유로 김장호의 목사직을 박탈하였고, 1923년 총회는 노회의 처리를 인정하여 기정사실화하였다. 그러나 그는 노회의 결의에 불복하면서 노회 탈퇴를 선언하였다. 또한 신원교회 경영 실패로 학교에서 광기호(郭斯浩) 외 13명과 함께 '정신(正信)의 교회', '동양인의 교회', '국민의 교회'를 표방하면서 '조선기독교교회' 창립을 선언하였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연방 해결을?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달에 나눠 드리겠습니다.
·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상처 받은 부상자들을 돕는 위생병 훈련

GIFT(Global, Individual, Family Transformation) 상담치유 연구원은 오는 22일 (토) 오전 10시와 10월 13일 (토) 오전 10시 두 차례에 걸쳐 GIFT 상담치유연구원(주소: 156 Soco Dr. Fullerton, CA 92832)

에서 KAMT(King's Army Medic Training, 위생병 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무료 오리엔테이션을 연다. GIFT는 이번 훈련을 '나를 먼저 돌아보며 강해지는 훈련, 남을 더 이해하는 훈련이 될 것이며 훈련에

참석한 이들에게는 정신건강 응급 처치사 자격증이 수여 된다'고 소개했다. 예약 및 등록은 전화 714-522-4438, Email: kamt@giftheal.com 을 통해서 하면 된다.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 ✓ 현수막 | 천막
-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 프로모션 상품
-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롤업배너

현수막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T. 877.922.6679

한국어. 714.367.3046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79>

예루살렘에서 올려드린 48시간 연속 중보기도 예배(2)

예루살렘은 신비한 지역이다. 하나님의 각별한 뜻이 있는 곳이 기도하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인지, 팔레스타인 땅인지 이슬람 땅인지 구분이 안되는 복잡한 지역이다. 예루살렘에 모인 미주 한인 중보기도자들은 다민족 중보자들과 함께 48시간 동안 그곳에 마련된 예배처소에서 단 1분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집회를 진행했다. 먼저 이 지역의 갈등과 반목, 전쟁과 희생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길 기도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협정을 맺고 서로 다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열리기를, 더 나아가 중동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기도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조차 위험하고 무모하다며 이를 폄하하고 나무란다. 필자는 그렇지 않다 고 자신한다. 매년 이슬람권 최전방 선교지에 들어가 직접 선교를 경험하고 있는 필자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계심을 확신한다.

순서마다 각국 대표들이 각 나라의 선교 활동을 보고했고 중보기도자들은 그 나라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했다.

집회에 참여한 교우들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계8:3) 계시록의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깨달았다고 했다.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천사들이 그 기도들을 받아 하나님께로 올려 드리는 영적 체험을 했다는 교우도 있었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선교현장에서 드러지는 중보기도의 능력은 그 현장을 모르는 곳에서 고상하게 드러지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르다. 목숨을 거는 기도가 이루어진다.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백성들을 지켜내야 하는 치열한 싸움이다. 선택받은 주의 종들은 날마다 열방에서 이 싸움을 치루고 있다.

중보기도한 후에 미주의 중보기도자들은 2주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요르단과 터키 등으로 흩어져 제비뽑기로 나뉘진 3, 4명의 팀원들과 함께 가정 방문하며 복음을 전한다. 많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롬10:14) 주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 같이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신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죽음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물러설 수 없다. 불쌍한 무슬림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세주이심을 듣고 믿는 이들이 때해 선교지에서 생긴다.

지금 열방의 선교현장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특히 영적 동토의 땅으로만 간주되어온 중동의 이슬람 지역의 선교현장은 1년이 멀다 할 정도로 변화무쌍하다. 이제 중동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나라는 없다.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란, 이라크 어디에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지인 성도들, 현지인의 교회들이 날마다 세워지고 있다. 지금 여러분도 결단하면 그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신앙적 관용과 배려의 바탕에 세워진 네덜란드의 노인 행복!

행복 선진국 네덜란드는 노인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규가의 복지를 생각하면 노인 복지를 살펴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는 지금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은 전세계적인 추세로 막을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는 제법 오래 전부터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미리 준비하고 대안을 개발하고 실천해 온 노인 행복 국가입니다. 네덜란드의 노인 행복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야말로 완벽한 프로그램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먼저 노인 행복의 기초가 되는 노인 연금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퇴직 전 소득의 70%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아주 수준 높은 노령 연금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 6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수급이 가능합니다.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완벽한 노인 연금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노인 연금은 국가의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며 철저한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부담으로 실행됩니다.

네덜란드 노인 행복을 보장하는 두 번째 요소는 노인 취업입니다. 네덜란드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다양하게 준비해 노년기에 일하는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행복학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유능감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자각하면 각종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어 불행하게 됩니다. 직업이 주는 긍정적 효과 중에 하나는 유능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을 뒷방 늙은이가 아닌 사회 현장의 주역으로 세워가는 것이 네덜란드 사회의 자랑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속감과 유능감을 갖게 함으로써 행복감을 증진합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독립사 PMU(Netherlands Senior Experts)를 설립해 각 분야 은퇴자들을 개도국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한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세계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덜란드 지역정부는 노인들을 위한 컴퓨터교육, 직업교육을 제공해 왔습니다.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노년에 취업 준비를 미리 하게 하고, 65세가 되어 은퇴하면 노년 재취업을 위한 구체적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하게 합니다. 정부는 기업을 설득하여 노인 노동력을 활용하게

하고 기업이 노인 노동력을 활용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네덜란드 노인 행복을 보장하는 세 번째 요소는 치매 마을과 치유 마을 그리고 노인 마을 등 노인들을 위한 생활 공동체 조성입니다. 네덜란드에는 다양한 노인 마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그베크에 있는 치매 노인 전문 마을이 있습니다. 치매 노인도 자유롭게 생활하며 활동할 수 있어야 하고 삶의 재미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간호사가 설립한 특수 마을입니다. 물론 중앙 정부와 지역기관의 협조로 중증 치매 환자와 환자들을 돕는 스태프로 구성된 특수한 마을입니다. 노년 인생을 위해 구성된 다양한 마을들을 다음 호에 살펴드리겠습니다만 노인들을 위한 마을 구성이 네덜란드 노인 행복의 상징입니다.

노인들이 행복한 네덜란드는 흔히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노인 복지 정책이 잘 돼 있습니다. 네덜란드 복지의 발전은 네덜란드 사회를 지탱하는 기독교 정신에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사회 곳곳에는 성경이 말하는 관용정신과 배려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런 정신으로 노인들을 돌보고 존중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미래나 노년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국가와 시민들이 더불어 힘을 모아 노년의 질병과 가난을 물리치고 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바로 네덜란드의 행복 비밀입니다.

중동 지하교인에 북한 지하교인의 ‘고난의 영성’ 나눠 한국VOM, 중동 기독교인 훈련 프로젝트에서 강의

한국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가 중동 기독교인들에게 북한 지하교회의 소식과 이들에게서 배운 교훈을 전했다.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와 최고 경영자 에릭 폴리 목사는 지난 8월 중, 중동지역 협력기관인 언차티드(Uncharted)가 주관한 중동 기독교인 훈련 프로젝트에서 강의했다. 프로젝트에는 쿠르드족으로서 야지 디교를 믿는 소수 민족인 야지디족, 쿠르드족, 요르단과 팔레스타인 기독교인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15년째 북한 지하교회와 동역해 온 현숙 폴리 대표와 에릭 폴리 목사는 북한의 기독교인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북한 동포들을 찾아가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왔다. “이 프로젝트에 관련한 사역자 중 순교자만 36명”이라 한

국VOM은 밝혔다.

현숙 폴리 대표는 “중동 기독교인들도 북한 지하교인들처럼 극심한 핍박에 직면해 있다”며 “그래서 공식협력단체인 언차티드 팀은 중동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게 돕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명하시는지 가르치기 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기독교인은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핍박받지 않는다”며 “중동지역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주된 이유는 보통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석한 요르단 출신의 기독교 지도자는 “과거 한국 선교사들이 우리를 방문해 기독교인들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번영에 관해서만 말했지, 핍박에 관해

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중요한 훈련은 받아본 적이 없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계기로 한국VOM은 중동 4개국의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도 훈련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폴리 대표는 “역사를 통틀어 전 세계에 존재해 온 교회는 모두 한 몸”이라며 “우리는 기독교인 형제 자매들이 신실할 때에 겪는 고난에 대해 알아야 하며, 우리 또한 복음이 더욱 전파될 수 있도록 핍박 속에서도 신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교회의 핍박에 관해 알고 싶으면, 언차티드 대표 톰 도일 목사의 베스트셀러 『꿈과 환상』을 참고하면 된다. 이지희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업,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만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World Share USA
621 S. Virgil Ave. #260, LA, CA90005

▪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복음이 가리워지는 이유

마태복음 13:3-1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은 복음이 가리워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을 알게 해주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한 일곱 가지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이 그 중에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논밭에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었습니 다. 그러나 그 씨앗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 단단해진 길 위에 제대로 묻혀 썩을 날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즉시 먹어 치웠다고 합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했 습니다. 돌 틈새에 흙이 조금씩 끼어있는 곳에 떨어진 씨앗은 곧 썩어 납니다. 그러 나 흙이 너무 얇아서 태양의 뜨거운 열기에 뿌리를 더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지 만 가시가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영양분도 흡수 못하고, 태양도 가려서 자 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 어진 씨앗은 흑 백 배, 흑 육십 배, 흑 삼십 배의 결실을 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 의미하는 것은 마음이 강퍽해져서 시멘트 바다처럼 완전 히 굳어버린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 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못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누군가 무엇을 주 면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마귀에게 즉 시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엉이리진 심령으로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원망하 며 한을 품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너무 예민하며 모든 불 행은 남의 탓으로 돌려서 시비하며 걸고 넘어집니다. 이런 사람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 얻을 소망이 없 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상대방 을 찔러 아프게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가시나무와 엉겅퀴 가 우거져있어서 다른 것을 받아들일 여 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상하고 찌 들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 람은 말씀의 썩은 틈을 수 있지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결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로 각각 다르게 나타 난다고 하십니다.

아스팔트 같은 굳은 땅을 파서 일구었 고 덩어리도 깨뜨리고 돌도 추려내고 가 시나무와 엉겅퀴도 뿌리째 다 뽑아내 던 져 버리고 좋은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랬 더니 그 땅에서 썩이 나고 꽃이 피어나고 향기도 풍기며 열매도 영글었습니다. 그 중에 믿음이 온전하게 한 평생을 지극정 성으로 잘 가꾼 사람은 백 배의 결실을 이

루어 드렸을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자기믿음이 너무나 지극정성이어서 하나 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백 배의 전도열매 를 맺게 해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 해서는 우선 자기 믿음이 바로서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엉겅퀴는 다 뽑아 내 버려야 하는데 그냥 잘라내기만 하면 그 뿌리가 남아 있다가 또 가시가 돋고 뻗어 나가 됩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의 결실이 각각 다른 것은 모두가 회개한 마음이라 할지 라도 그들이 얼마만큼 말씀에 전적인 순 중의 생활을 힘썼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 라집니다.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해변에 둘러서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는 왜 비유 로 말씀하시냐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 은 천국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 으나 저 많은 무리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36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 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 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즉 누가 구원을 얻고 못 얻고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지만 하나님이 깨 닫게 해주심을 받은 자들은 이 비유가 깨 달아져서 영적인 성과를 목적으로 남은 생 을 믿음으로 살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12절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음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 들까지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영적인 부요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 령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받지 못한 사람 은 지금의 생명과 하나님이 원래 태어날 때 주신 영까지 다 빼앗기고 맙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웃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하나님을 뵈고는 죄를 사함 받 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 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하는 말씀에 “내 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하며 담대히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 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 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 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 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 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하십 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사명을 받은 것이 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 고 야단쳐서 회개하고 구원 얻도록 하라 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 백성들에게 가 서 눈이 멀게 하고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마음이 둔탁해지게 해서 다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옥 가 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백성들이 죄 값으로 비참하게 하나님의 형벌과 멸망을 당할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런 역할을 어느때까지 해야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성읍들은 황폐하 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 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 호와게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사6:11-12)”고 대 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죽음을 당 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예루살렘이 축 대밭이 되고 저들이 살던 집은 빈집이 되 며, 모든 것이 황폐해질 때까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애간장을 태우며 통곡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사야에게 하 나님은 “그 중에 심분의 일이 오히려 남 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기운바 될 것이 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 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 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사6:13)” 며 위로하십니다.

이스라엘이 300만이었다면 30만 명은 포로로 끌려갔던지 혹은 먼 나라로 도망 을 갔던지간에 죽지 않도록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후에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반성하고 회개하게 될 때 그 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폐허 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라 고 위로하십니다. 나무를 잘라내더라도 그 그루터기가 남는 것과 같이 그 그루터 기에서 새로운 생명의 씨가 나서 다시 하 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들이 될 것 이며 그 씨가 이스라엘을 번성케 할 것이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를 통하여 전하라하신 말씀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귀찮아 했기에 하나 님 앞에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 없었습 니다. 이들은 앗수르에게 가혹하게 짓밟 힘 당하고 그 이후 바벨론에게 70년간 착취와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 16-17절에서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 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 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 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 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알게 하 셴습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 데 역사하고 계심을 안 믿을 수 없도록 충 분히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자기 인생을 제멋대로 설계하며 세상 허욕을 좇아 불의 와 죄악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섬기기보다 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모습으 로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 야 하는데 도리어 점점 타락하고 세속적 으로 변질되어 외식적인 신앙생활과 형식 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 다. 어쩌면 오늘의 참 목자들도 하나님 앞 에 애타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이사야의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이같은 신앙이 계 속되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지 를 잘라 그루터기만 남게 하셨듯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 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그루터기가 생명의 씨로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하 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650 금요일 오후 2시30분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담임목사 청빙

캘리포니아주 LA동부에 위치한 **인랜드교회**는 미국장로교(PCA) 한인 서남노회 소속 교회로 1984년 8월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자녀들을 포함한 2000여명의 교인들이 예배공동체, 훈련공동체, 선교공동체로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제 5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 미국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한 분
- 5년 이상 미국에서 Full-time으로 목회한 분
- 미국장로교(PCA) 한인 서남노회 회원 혹은 노회 가입이 가능한 분
- 이중문화권(한국, 미국)에 익숙한 분
-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 보유한 분

제출 서류

- 본교회 지원서 작성 (지원서는 교회 홈페이지 www.inlandchurch.org 에서 다운로드)
- 이력서 (가족사진 첨부)
- 목회 계획서(목회 비전과 계획)
- 목회 안수 증명서, 최종 졸업 및 학위 증명서
- 1년 이내의 한국어 설교 2편 동영상 (DVD/오디오파일도 가능) 및 영어설교 1편 (Optional)
- 한글 본인 소개서 (영문 소개서 - Optional): 신앙고백, 목회경험, 성장배경, 가족소개, 소명
- 3명의 추천서(추천서는 추천인이 본교회 searchcommittee@inlandchurch.org로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Attn: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제출 마감

- 2018년 9월 30일(주일)까지 마감합니다.
- * 제출 방법: 이메일 (PDF로 작성) 또는 우편
-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을 만스름잔치

주제: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합 3:2)

초청합니다!!

한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누그러지면서 어느새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조석으로 우리를 스쳐갑니다.

이 가을의 문턱에 기쁜우리교회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진정한 자아와 참된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 말씀 잔치를 마련하였사오니
많이 참여하셔서 크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 시: 9월 7일 (금)~9일 (주일)

9월 7일 (금)	저녁 7시	고난이 주는 축복	시 119:67,71
9월 8일 (토)	새벽 6시	하나님을 아는 축복	대하 7:14
9월 8일 (토)	저녁 7시	복음전도의 축복	행 1:6-8
9월 9일 (주일)	1부~3부	형제 화해의 축복	창 45:1-11
9월 9일 (주일)	저녁 6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잠 29:18



강사: 임 현 수 목사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목사)

[약력]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간사
- 캐나다 토론토 닉스 신학교
-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전도사
-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2대 담임목사
-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목사
- 現 세계협력선교회(GPA) 이사장



기쁜우리교회



교회 비전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담임목사 김 경 진



교회 Website: www.joyfulccc.org
EM Website: www.joyfulcc.com
Email: joyfulCCC.office@gmail.com

주소: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전화번호: 818-662-0400 . Fax: 818-662-0800



타코마 목사회에서 제 1차 워싱턴주 선교대회와 선교 세미나를 소개하는 모습.

서북미 워싱턴주에 선교의 새 바람

제 1회 워싱턴주 선교대회 및 세미나 준비

워싱턴 주 선교단체연합회(회장 이병일 목사, 이하 워선협)는 워싱턴주 선교 활성화를 위해 내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정민영 선교사(국제 위클리프 부회장), 박기호 교수(풀러신학교 선교학) 등을 주강사로 제1차 워싱턴 주 선교대회(대회장 이상진 장로)를 개최할 계획이다.

워선협은 내년 선교대회에 앞서 서북미 지역 목회자와 선교위원들을 초청해, 오는 9월 18일(화) 오후 6시, 웨드럴웨이 제일장로교회(담임 최봉길 목사)에서 선교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워선협은 선교 세미나를 계기로 오늘의 서북미 선교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선교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삼을 예정이다.

워선협은 내달 선교 세미나 주제를 “워싱턴주 한인교회 선교활성화 방안과 협력”으로 정하고 컴미션 대표 이재환 선교사, 새교회 원로 목사, 시애틀 연락교회 배명현 목사,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최성은 목사 등을 강사로 초청해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대안”, “중소교회를 위한 선교 협력 방안”, “지역 교회와 선교 단체의 바람직한 선교 협력”등을 모색하게 된다.

대회장 이상진 장로는 “1976년 5월9일부터 16일까지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Billy Graham Crusade in Seattle)가 시애틀에서 열렸는데 8일간 연인원 43만4천명이 참석하고, 약 2만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적인 집회였다. 이어 7년 후, 1983년 5월 타코마 돐에서 다시 열린 빌리그레함 전도대회에는 연 인원 21만1천명이 참여해 약 1만명의 결신자가 나왔었다”며 “전도 대회는 서북미지역 교회에 선교와 전도의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고, 당시 한인교회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교회개혁과 성장의 길을 걷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진 장로는 “2019년 4월에 1차로 열리는 워싱턴주 선교대회는 서북미에 소재한 한인 이민교회가 연합하고, 차세대와 다민족들이 참여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고,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키는 선교대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선교사적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서북미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워선협 회장 이병일 목사는 “선교는 교

회들에 주신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교회가 가진 제일 사명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대업”이라며 “대회를 통해 서북미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 길을 열고 방향하는 인생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우리들의 이웃,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총무 박상원 목사는 “오늘의 선교는 성도의 수는 물론 교회 수가 줄어들고, 전도와 선교가 힘을 잃어 청년들과 다음세대가 걱정되는 시대”라며 “선교대회는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선교 부흥과 확장을 위해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대회 취지를 밝혔다.

한편 워선협 임원들은 지난 27일, 타코마 목사회를 방문해 내달 있을 선교 세미나와 2019년 제 1차 워싱턴주 선교대회 세미나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워선협 이병일 목사는 “워싱턴주 선교 대회는 지역교회와 성도들의 동참과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지역교회와 모든 선교단체가 기도로 준비할 때, 서북미 선교 부흥의 역사를 맞게 될 것”이라고 교계와 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타코마 목사회곽호준 목사는 “선교 대회와 세미나를 통해 서북미 지역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전파에 한 마음을 품게 되길 바란다.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교회와 선교 단체가 꾸준히 협력해 선교 확장 바란다”며 워선협 회원들의 방문을 환영했다.

워싱턴 주에서 사역하는 선교단체들의 모임인 워선협은 GSM 선한목자선교회(대표 황선규 목사), 기드온 동족선교회(대표 박상원 목사), 시애틀 글로벌 복음방송(대표 이상진 장로), 조이플 선교함정단(대표 장현자 목사), 리빙투게틀 미션(대표 이병일 목사), 세계장조선교회(대표 박상성 목사), 사론센터(대표 김명부 목사), 성령의 샘(대표 피터양 목사), 시택함정단(대표 배진규 목사), 제자들선교회(대표 최성수 목사), 킨슬러선교회(대표 신영순 목사), 낮은올타리(대표 이현 목사), 한사랑선교회(대표 한길수 목사), 글로벌 미션(대표 김순홍 목사), 열방을 품은 기도성회(대표 원 호 목사) 등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풀원 기자



스머나로 이전한 크리스탈한인교회

크리스탈한인교회 이경훈 목사 취임감사에배 앞뒤

조지아주에 위치한 크리스탈한인교회가 오는 9일(주일) 오후 5시 이경훈 목사 취임감사에배를 드린다.

교회 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예배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초청의 말을 전했다. 크리스탈한인교회는 161 Church Road, Smyrna GA 30082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의는 770-690-9112로 하면 된다.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침중학교 / 토요일-17와 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2세를 버려지게,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장태원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8: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아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향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시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전야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대예배 1부 오전 8:00 세각죽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6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로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있습니다)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중 담임목사

에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수/금요일예배 오전 5:30
리셋에배(델리안예배) (소매예배)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믿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여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1부예배 오전 8:00 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30 라티노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목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6: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블러시(Calling), 고교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순환 담임목사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장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11:00
2부예배 오전 9:30 영어, 유치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한어청년부 오후 2:15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장주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조용철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김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일예배 오전 10:00-오후 1:00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찬양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장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들)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나,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7:3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u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경대방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라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롬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도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cg.org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와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별리채목 Valley Chapel MP제목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363-5887 Tel: (232) 337-0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교회 가는 길, 가슴이 뛰십니까? 좋은 교회서 옳은 교회로”

미래목회포럼, 제14-2차 기획목회 세미나



기념촬영 모습

미래목회포럼(대표 김봉준 목사) 제 14-2차 기획목회 세미나가 '부교역자의 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역을 성취하라'는 주제로 3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부교역자 세미나에서는 김형환 대표(한국경영리더십컨설팅)가 '좋은 교회에서 옳은 교회로 거듭나는 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대표는 "지금의 목회자나 교회에 대해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정보를 만들 수 있는 시대"라며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가는 대신 스마트폰을 켜고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옳은냐의 문제를 떠나, 그런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많아졌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도인들은 무작정 질문하기보다 경청과 공감에 힘써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지금 외부적으로가 아닌, 내부적으로 힘든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혹시 어려워도 이것만은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가 직장에, 교회에 출근할 때 가슴이 뛰는가"라며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자.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고, 구체적인 팩트를 갖고 칭찬과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혔다.

김 대표의 "지금의 목회자나 교회에 대해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정보를 만들 수 있는 시대"라며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가는 대신 스마트폰을 켜고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옳은냐의 문제를 떠나, 그런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많아졌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에서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성장'이다. 그리고 재성장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지속적인 성장"이라며 "자신의 문제를 알면 성장하지만, 모르면 성장할 수 없다. 우리는 사역을 사업처럼, 사업을 사업처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형환 대표는 "옳은 일은 복잡하지 않지만, 좋은 일은 매우 복잡하다. 옳은 일이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복잡함은 모든 성도들을 만족시키고 지구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것이라면, 단순함은 주변의 한 사람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옳은 결정을 하기 어렵다. 우리 그리스

이후 김기배 교수(한양대)가 '미디어 제작과 목회', 서길원 목사(상계감리교회)가 '순교의 영성으로 무장한 부흥의 세대', 유현우 사무국장이 '언론 홍보 및 대응'을 각각 발표했다. 지난 2003년 창립한 '교계의 싱크탱크' 미래목회포럼 측은 세미나를 수료한 회원 교회 부교역자들이 1-2주간 현장에서 실천한 내용을 전문가들이 평가해 각 교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앞선 개회예배에는 박종연 사무총장(미래목회포럼) 사회로 김봉준 목사가 '갈렙처럼(수 14:6-15)'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목사는 "지금 담임목회를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모두 부교역자로 출발했다"며 "부교역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들어 쓰심을 기억하고, 믿음을 갖고 앞으로 전진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대용 기자

오정현 목사 “옥한흠 목사 ‘한 영혼’의 소중함 깊이 새기고”



故 옥한흠 목사 8주기 기념예배 모습.

故 은보(恩步) 옥한흠 목사 8주기 기념예배가 지난 3일 경기도 안성시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에서 드려졌다. 사랑의교회는 "매년 고인이 걸었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한국교회에 남긴 제자훈련 목회철학의 유산을 계승하고자 기념예배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번 8주기 기념예배는 CAL-NET 목회자, 사랑의교회 교역자, 사랑의교회 교우 및 포에버찬양대 등 5백여 명이 자리했으며 김영순 사모와 장남 옥성호 집사를 비롯한 유족들이 모두 함께했다. 최상태 목사(화평교회, CAL-NET 전국대표)가 사회를, 신재원 목사(새춘천교회, CAL-NET 자문)가 기도를 맡았으며, 이기혁 목사(대전새중앙교회, CAL-NET 이사)가 축도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는 '생명 교제 기쁨'(요한일서 1:1-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오 목사는 "1978년 옥한흠 목사가 미국 유학 후 내수동교회 대학부 수양회를 인도하셨던 적이 있었다. 사흘 동안 40여 명의 청년들은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주제라 할 수 있는 생명과 교제와 기쁨을 묵상했고, 이것이 이론이 아닌 실제이며, 체화되는 것이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체험했다"고 했다. 오 목사는

"이후 한 달 뒤 복음전도대회를 열어 불과 50명에 불과했던 대학부가 그 10배에 해당하는 500명의 대학생들을 초청했고, 그 중 5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목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진정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교제와 기쁨을 회복해야 하고, 복음이 약해지고 세속화된 이 시대 속에서 옥 목 사남께서 강조하신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신앙의 순도를 지키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겸손함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유족을 대표해 인사말을 전한 김영순 사모는 "옥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며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의 뜻을 기리고자 이곳에서 기념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CAL-NET을 대표해 인사말 한 오정현 목사(CAL-NET이사장)는 "옥한흠 목사님께서 남기신 뜻을 CAL-NET 동역자와 함께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후 최상태 목사의 인도로 모두가 합심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故 옥한흠 목사 8주기 기념예배를 마쳤다. 김진영 기자



크리스 호지스 목사

크리스 호지스 목사 “교회는 교인들만의 장소가 아니다”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곳”

미국 앨라배마주 버밍햄에 소재한 대형교회인 하일랜드 교회 담임목사인 크리스 호지스(Chris Hodges) 목사가 “교회 교인들을 위한 독점적인 장소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그는 지난달 프리미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힐송 컨퍼런스에서는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작은 클럽이 아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우리와 함께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교회 사람들을 훈련시켜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그가 사람들에게 봉사했는지 가르쳐야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은 발견된 자들이 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보다 ‘잃어버린’ 자들(불신자)과 함께 있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신다”고 강조했다.

호지스 목사가 복음을 갖고 지역사회에 다가갈 때에 항상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correct) 것을 하기 전에 연결하라(connect)”이다.

그는 “예수님은 옳은 일을 하시기 전에 연결되어 있었다”면서 성경의 사례로 예수께서 세리였던 삭개오에게 다가갔을 때를 들었다.

호지스 목사가 누군가가 선물한 주문 제작 수트를 받으려 상점을 방문했을 때 그곳의 재단사가 힌두교인인 것을 발견했다. 그는 가게에 힌두교 신앙을 두고 있

었다. 재단사 역시 호지스가 목사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둘은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수트 주문 제작이 끝날 때 재단사는 호지스에게 자신의 가게를 방문하고 그의 힌두교 신들이 거짓이며 그가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했던 다른 목사들과 “매우 다르다”고 말했으며 “호지스 목사의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호지스 목사는 “그들(다른 목사들)은 정확했지만 그들은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서 “먼저 고치거나 바로 잡기 보다는 연결되어라. 고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나는 성경에 대해 우유부단해지라는 말이 아니다. 나는 당신이 확고하게 설 수 있고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순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간음한 여인에게 하였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직적으로 견고하게 서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서적 ‘다니엘 딜레마’(Daniel Dilemma)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책에서 그는 믿는 이들에게 어려운 질문, 즉 “불쾌하거나 모욕적이거나 화를 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경적 신념을 확고하게 지키는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다.

호지스 목사는 “진리를 위해 중요한 것은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고치려 하기 전에 연결하는 비밀을 배울 때 오늘날의 어려운 질문에 대해 타협없이 대응할 수 있음을 발견한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기자

브라운대학, 트랜스젠더 관한 연구 웹사이트에서 삭제해 논란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브라운대학이 트랜스젠더 활동가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연구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했다고 최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사이언스 데일리 기사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브라운대학 공중보건학교의 행동 과학 및 사회 과학 실습 교수인 리트먼 박사는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자기가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이 급속하게 나타난 청소년 및 청년과 이 질환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부모 25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동년배의 압력이 발달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설문 조사에서 부모 중 21%는 “자녀가 트랜스젠더로 확인 된 친구를 한 명 이상 갖고 있다”고 말했고 80%는 “자녀가 자신을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을 가졌을 때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증가한 때와 거의 일치했다”고 대답했다. 45%의 부모는 두 가지 증상을 모두 보고했다.

사이언스 데일리에 따르면 리트먼 박사는 트랜스젠더 멤버들의 성 불쾌감과 친구 그룹 사이에 가능한 상관 관계가 있다고 결론지었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십대들이 온라인에 노출되어 있는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한 조건의 유형도 성 불쾌감과 관련 있다고 결론지었다.

리트먼 박사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성별 불쾌감은 동료 중 한 명, 여러

명 또는 심지어 모든 친구들이 거의 같은 시간, 집단 안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브라운대학 공중보건학교의 학장인 베스 마르커스는 리트먼의 연구를 학교 웹사이트에서 삭제한 결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연구의 결론이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지원하고 트랜스젠더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관점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브라운대학 멤버들로부터 듣게 됐다”고 밝혔다.

라디오 진행자인 벤 사피로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을 데일리 와이어에 기고하면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치적으로 올바른’(Politically Correct) 입장을 해친다는 이유로 논문이 삭제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UC 버클리 정부연구소(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의 수석 연구원인 스티븐 헤이워드는 브라운대학을 “비겁하다”라고 비난하면서 “이데올로기적인 정체성을 가진 정치그룹은 더 이상 연구를 원하지 않는다. 리트먼 교수의 연구를 억압하고 부인하는 연구를 원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조사하는 학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리트먼 박사의 연구를 보호하기 위한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자들은 “연구 결과가 당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과학적 연구 결과를 묻어 버리지 말라” “진실을 숨기지 말라”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

O.C./앨버틴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아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카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일 두번씩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사바하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앨버틴온누리교회
다들 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1:30(청년 한어) 장년부 수요일침례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앨버틴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일하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카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온평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박자는 교회 세계화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후 1:30 **박훈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람학훈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재자생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3시(토)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어예배(EO)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다우니제일 교회
새 사명을 입으라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OSEPH SU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L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남가주 한인 장로협의회 Korean Christian Elders in California

제12회 선교와 이웃돕기 위한 사랑의 찬양제
조가울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참가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행사에 함께 하는 교회와 단체

1. 중현선교교회 (지휘 : 이상열)
 2. 남가주 사랑의교회 (지휘 : 조성환)
 3. 나성성결교회 (지휘 : 김영안)
 4. 목사 장로 부부 찬양단 (지휘 : 이재경)
 5. 남가주 장로 성가단 (지휘 : 조성환)
 6. 오렌지 미션 콰이어 (지휘 : 장진영)
 7. 대광 OB 코랄 (지휘 : 강민석)
 8. 남가주 장로 성가단 중창단 (지휘 : 조성환)
 9. 정신 동문 코러스 (지휘 : 한효정)
 10.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여성찬양대 (지휘 : 이은아)
 11. 미주 여성 코랄 (지휘 : 오성애)
- # 헌금송 : 김효정(바이올린) 최형언(피아노)

- **일시** : 2018년 9월 16일(주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 중현선교교회 (담임:민중기 목사)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 **문의** : (818)522-2780, (909)319-2158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회장 김용식 장로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6~7살 1~2명 모집) 초보가능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가을 맞이 고국일주 여행

그리운 고국으로 어르신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모시겠습니다.



- 일 정**
- 고국방문 7박8일
한국일정 (10/6-10/13)
\$1,140 + 항공료
(특급호텔, 식사, 가이드팁 포함)
 - 옴션 베트남 3박5일
베트남일정 (10/2-10/6)
고국+ \$450

www.KorusTour.com
 문의: 213) 503-6196 제시카
 213) 842-7079 JAY LIM



조금 더 견디십시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시작한 일을 완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목표라고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큰 목표라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원리를 잘 배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한 일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쓸데없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달성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혜는 의미 있는 목표, 가치 있는 목표, 보람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운 사람은 열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실패를 딛고 거듭 일어나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기어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걸을 수는 없습니다. 수없이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 걸음마를 배우고, 마침내 걷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두려워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십시오. 실패를 통해 지혜를 얻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십시오. 윈스턴 처칠은 "성공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에서 다른 실패로 건너가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역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경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역경을 목표 달성의 과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순조롭게 일이 잘 풀릴 수는 없습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역경은 가끔 밀려 왔다가 물러가곤 합니다.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역경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정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아 준 명언이 있습니다. "지질 줄 모르는 사람은 역경을 지치게 만든다." 이 짧은 명언을 붙잡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냈습니다. 역경은 우리를 지치게 하려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이, 오히려 역경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거절을 극복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고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쁨으로 도와주시지만 거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절을 당한다는 것은 아픈 경험입니다. 하지만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거절을 당할 때 너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거절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거절하는 분들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우리도 거절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절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거절해야 할 때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 거절하지 못하는 분들이, 마땅히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못한 것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함으로 그는 자신을 지켰고, 가족을 지켰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거절을 해야 할 때는 거절해야 합니다.

다섯째, 조금 더 견뎌야 합니다. 작은 꿈은 쉽게 성취되지만 큰 꿈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성취됩니다. 큰 목표를 세웠다면 멀리 바라보며 조금씩 하면 안 됩니다. 길게 보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인내에 있습니다. 멀리가기 위해서는 쉬어가면서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진해야 합니다. 견디기 있을 때 쓰임이 있습니다. 그냥 견디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견디십시오.

의미 있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좋은 격려자와 동행해야 합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도록 힘을 더해 주는 분들을 고마워하십시오. 힘들 때 힘을 더해 주는 분들을 고마워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지혜로운 격려자들과 더불어 시작한 일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격려(encouragement)란 단어는 우리 안에(in) 용기(courage)를 불어 넣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 훌륭한 격려자들은 용기를 불어 넣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소시오! 부족한 중을 도와주소시오!

GOOD UNDERSTANDING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최근에 감동적인 동영상을 접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폐를 앓고 있는 한 자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칼리는 캐나다 토라노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살 때부터 자폐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칼리를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3살 때부터 일주일에 40-60시간 정도 전문 교사를 통해 일대일 지도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칼리는 알 수 없는 돌발적 행동을 했고, 말을 할 수 없는 장애로 인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11살 때,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날 따라 칼리는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컴퓨터 키보드에 "HURT 상처"라는 단어를 입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Help"라는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사실, 그 단어들은 아이에게 가르친 적이 없는 단어들이어서 치료사들과 부모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날 이후로, 아이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칼리는 더 이상 글자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치료사들은 칼리의 능력을 끌어 내기 위해, 칼리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타이핑하지 않으면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달 후 칼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컴퓨터 키보드로 타이핑하면,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몇 마디 단어나 어설픈 문장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글을 타이핑 하는 것에 익숙해질 무렵 놀라운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자폐아입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아닙니다. 저를 판단하기 전에 저와 먼저 친해져 보세요. 제가 제 머리를 때리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 흔든 풀러처럼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서입니다. 이런 상태를 제가 스위치로 키고 끄듯 할 수는 없잖아요. 제 자신과 제 두뇌는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보통 애들과 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하지만 갑자기 소리를 질러 친구를 놀라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이

불(fire)을 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결국, 치료사들과 칼리의 부모님은 칼리가 스스로의 몸을 조절할 수 없는 고장난 몸에 갇혀 있어서, 자신을 컨트롤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칼리를 정상적인 십대 아이를 대하듯 대하기 시작했고, 칼리의 장애는 많이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칼리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다 이해했다',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종종 심사숙고 하지 않고, 말을 건네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이해(good understanding)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어려운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민감함, 상대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 상대의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좋은 이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는 상대를 이해하는 좋은 지각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사례 깊은 감사 가족이 되십시오.

축복의 아이스 브레이커



박성근 목사
 남가주 새누리교회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을 줄 알아야 합니다. 웃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웃음과 기쁨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은 빛을 만들어 내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웃으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살전 5:16-18), 하비 콕스는 "웃음은 희망을 가져 오는 최후의 무기이다"라고 했습니다. 암 전문의 리버크 박사는 "웃음은 대체의학이 아니라 참 의학"이라고 까지 했습니다. 웃음에는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역대 정치가들 중 가장 얼굴이 못 생겼던 사람이 링컨이었다고 합니다. 한번은 링컨이 의회에서 야당의원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이 "당신

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 인격자요" 라고 비난하자, 링컨은 화를 내기 보다는 약간 어눌하다는 표정으로 다음과 같이 반문했습니다. "나에게 두 개의 얼굴이 있다면 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하필이면 이 못생긴 얼굴을 갖고 나왔겠습니까?" 이 한 마디 말에 폭소가 터져 나왔고 경직된 분위기가 순식간에 화해 분위기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누군가가 미워질 때 읽는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남쪽 섬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시비가 붙으면 노래로 그것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누가 싸우면 서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싸움이 깊어 갈수록 노래 소리도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도 차츰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온 동네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싸움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잔치로 끝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삶의 지혜입니까? 싸움을 축제 되게 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허무하다면...” 전도사가 풀어쓴 전도서의 지혜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펴낸 서창희 전도사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서창희
생명의말씀사 | 232쪽

올해 31세로 총신대 신대원에 재학중인 한 전도사가 구약성경 ‘전도서’를 풀어 쓴 책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를 최근 펴냈다. 저자는 대학교를 나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들어갔지만, 주님을 직접 증거하고 싶어 3년만에 퇴사 후 신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많은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3년째 ‘한사람교회(로마서 5장 19절)’라는 이름 아래 50여명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이번 그의 책도 한 출판계 경력이 있던 한 성도가 전도서 설교를 듣고 출판사 측에 ‘문의’해 나오게 됐다고 한다. 책은 돈, 투자, 관계, 진로, 타이밍, 리스크 등 실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들로 시작해 결국 복음으로 이어지는 10가지 ‘구원 계시’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일상이 힘겹고 허무한 이들에게 ‘순간’이 아닌 ‘영원’의 가치로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한다. 다음은 지난 8월 초 저자 서창희 전도사와 나누는 이야기.

이번 책을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요즘 성도님들은 대부분 교회뿐 아니라 자신의 직장과 가정, 학교에서도 치열하게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삶의 흥미와 보람을 잃어버리고, 무기력과 우울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문제,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허무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타이밍, 돈, 리스크 같이 성도님들이 허무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을 9가지 키워드로 나누어, 각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허무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심판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새로운 개입, 새로운 뜻이 있다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9세 때였는데, 부모님은 ‘몇 년만 더 벌어서 안정적인 상태로 시작하는 건 어때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당시 방향하던 친구들을 섬기려면, 기다림이 더 길어졌던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갈 거라면, 재정적 안정을 확보한 상태로 뒤늦게 시작하는 게 과연 올바른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개척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지요(웃음).”

신대원에서 2년만 배우고도, 이런 책을 쓸 수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전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체계도 회심의 순간이 있었지요. 어느새 사고가 바뀌어서 바라보고 행동하는 게 달라졌는데, 왜 이렇게 변했는지 돌아보면 결국 특별한 체험보다 ‘말씀’을 듣고 들어서였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변증이 필요합니다. 제 세대 친구들의 특징이 있는데, 옛 세대 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데려가서 한두 번 다녀보기는 했지만 자신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래 세대는 아예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많아 기존 교회 구조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 뼈뺀 관점들을 설득하려는 과정 속에 이런저런 목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부교역자 생활 없이 바로 개척을 시작하셨네요.

“그런 보이지 않는 메시지 전달 방식의 공감대들이 제 경험들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도 부교역자로 충분히 사역할 수 있었지만, 직접 전도하는 것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득해야겠다는 마지막 확신이 있습니다. 교만은 아니지만, 저를 통해 부르실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펀딩을 크게 받아서 해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목적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득하고 변증하는 거라면, 각 개인들의 상황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 계획을 짜서 모임을 갖고 싶었습니다. 개척을 막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전도서에는 어떤 매력이 있나요.

“예전에는 ‘잠언’ 류의 지혜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1990-2000년대에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지적이고 정돈된 자기계발 류의 설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셨다면, 지금 분위기는 좀 꺾인 것 같달까요.

경제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 꿈의 크기 때문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기회가 많고 시작하면 되겠다는 분위기보다는, ‘막힌 담을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하는 사회적 질문이 큰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제기를 기반으로 답을 풀어가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책을 썼다고 하니 ‘인생 다 산 다음 연로한 목회자들이 강해하는 책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답해보자면, 전도서가 말하는 허무는 다 늙어서 느끼는 허무가 아니라, 세대마다 종류는 다르지만 인생 전체에 있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연륜이 부족하고 살아본 경험이 훨씬 적지만, 말씀 속에서 공통적인 방향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저도 그렇고 젊은 이들이 다수인 청중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언어로 포장돼 있을 뿐, 젊은이들도 동일하게 ‘허무’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많은 성경 중 ‘전도서’를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개척에 함께한 성도님들이 한두 명씩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공통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교회 출석’의 의미를 찾지 못한 것일 줄 알았는데, 그들은 일하는 것에도, 사는 것에도 별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지친 상황에서, 교회라는 집이 추가로 얹어지는 느낌이었을까요. 그런 성도님들에게 그들이 가진 무의미, 허무, 지겨움, 지침 같은 감정에서 출발해, 복음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본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성경이 전도서였습니다. 이미 그 감정을 이해하는 성경, 그 허무를 먼저 기록해 놓은 성경의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전도서 설교에 교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 목회 평생,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될 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서 설교 시간이었습니. 그 날 지방에서 친구를 만나러 온 청년이 참석했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친구였는데, 설교 도중 눈물을 흘리며 회심했습니다. 설교를 이해한 듯, 뭔가 영적인 경험을 하는 듯 했습니다. 설교가 끝날 무렵 설교자인 저도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청년은 제가 전도사인지도 몰랐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따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한 번만 안아봐도 되나요?’ 당황했지만, 이내 회심의 경험이 너무 좋았어 감사사를 표현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포옹 후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자신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최근 저희 교회에서 리더가 되었으며 아직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설교는, 말씀이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확고하게 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서 설교를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유익이 있다면.

“어렸을 때는 성경을 바른 관점으로 읽지 못해, 전도서를 자기계발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연결지어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윤리적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나 전도서를 정경적으로, 복음으로 해석하면서 전도서 본문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일과 관련하여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 설교를 통해 회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 귀한 동역자들을 선물로 얻은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전도와 변증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팀 켈러 목사의 책 한 권(〈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을 접한 후, 그 분의 모든 서적과 설교를 탐독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뉴욕과 서울은 또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욕은 전문가들이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합당한 논리나 그가 좋아하는 권위로 기독교를 설명하면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아무리 말을

잘 하더라도, ‘너의 그 싸가지 때문에 듣지 않겠어’ 하는 것처럼 감정적 요소들이 훨씬 많습니다. 설득의 도구도 다릅니다. 이 시대 한국인들이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커리어와 자격증보다, 미디어의 영향력이 훨씬 큼니다. 성공한 CEO나 연예인들의 말이 더 공감합니다.

그래서 설득 수단이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희는 노방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해도 오지 않는데, 개인 생활과 안전을 중시하는 이 시대에 듣도 보도 못한 교회에서 주는 전도서 한 장을 보고 교회를 찾아올까요? 그래서 무조건 ‘관계전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설득 요소는 장소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한사람교회는 오로지 11시 주일 낮예배에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설교와 예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고, 실제 정착한 이들도 예배를 드린 후 계속 와야겠다고 한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공동체 숫자도 20-30명 수준이었고, 불신자들은 주로 친구 따라 찾아옵니다.”

허무와 낙담으로 지쳐 있는 기독 청년들에게 한 마디 해 주신다면.

“그리스도인인데도 ‘허무’를 느끼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죄책감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허무에 머무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허무도 고난의 일종입니다. 혼자 내면에서 싸우는 것이 좀 어려울 뿐입니다. 허무라는 고난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임재와 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면한 허무감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복과 개입을 구하시면,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책을 목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생명의말씀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라가고 있으니, 방문하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책 3권을 뽑아 주신다면.

“저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변증가로서 팀 켈러와 오스 기니스의 저서들입니다. 그리고 소설가로서 프란츠 카프카와 밀란 쿤데라의 작품들입니다. 본질을 막 끄집어내지만 반기독교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웃음).” 이대웅 기자

숨겨진 20야드를 찾아드립니다

골프클럽의 성능 70%는 샤프트에 달려 있습니다

휘텍골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만의 **名品** 클럽을 가져 보세요!



세상에
오직 하나
...
당신만의 완벽한 클럽

영/업/시/간
화요일~토요일

10:00 am ~ 8:00 pm

미국 스펙의 R(Regular)는 아시안 스펙 S(Stiff)정도로 강하고 무겁습니다. 제조사마다 같은 강도 스펙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샤프트의 강도를 알려면 Shaft Frequency C.P.M (1분 동안에 샤프트가 진동하는 수)을 측정하여 알 수 있습니다. 무게, 강도, 길이등 미국 스펙 골프채로 좋은 경기력 향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자신의 스펙을 찾으세요.

Private Lesson

단기간 집중 골프스윙 완성
스크린 통한 구질 분석, 자신의 스윙을 모니터로 보며 교정



휘텍골프 피팅 스튜디오



213.327.4080 / 213.315.5179
3050 W. 7th St #101 Los Angeles, CA 90005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송금 송금·환전 송금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ORION AUTO SERVICE

ASE CERTIFIED
 •SMOG •INSPECTION
 •TUNE-UP •BRAKE
 •FUEL INJECTION ETC.

2217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7
 Tel.(323)732-4669

VALERO 가스 스테이션 옆에 있습니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무료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서울대학병원 암센터내 고려대 안암병원내 입점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산성 3.5 6.0 7.0 8.5 9.0 9.5 10 알칼리성 셀라케어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강제 개종 없었다? 이슬람은 이집트 ‘침략’ 했다”

이나빌 선교사, <니끼우 요한의 연대기>로 이집트 이슬람화 과정 첫 소개

오일 머니와 수쿠크 이후, 이슬람은 ‘난민’ 문제로 또 다시 한국 사회에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교회와 난민을 품어야 한다’는 주장과 ‘테러와 범죄 우려가 있다’며 경계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아랍어와 아랍 문화 및 종교를 연구하고 있는 이나빌 선교사가 <니끼우 요한의 연대기와 이슬람의 이집트 침략>이라는 책을 펴냈다. 저자는 초대교회부터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던 이집트가 어떻게 이슬람화됐는지, 그 감춰졌던 역사적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1,400여년 전 쓰였던 ‘니끼우 요한의 연대기’의 발견을 통해서다.

다음은 8월 중순 만난 이 선교사와의 인터뷰.

책에서 소개하신 ‘니끼우 요한’은 누구인가요.

“니끼우’는 이집트의 고대 지명입니다. 아랍이 침범하던 당시 델타 지역에 존재했던 도시였습니다. ‘니끼우 요한’이란 니끼우에 살았던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지금부터 1,400년 전 아랍 군대가 이집트를 침략할 때 이집트에서 살았던 실존 인물로, 대략 625년에 태어나 700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랍이 이집트 침략을 시작할 때가 639년 겨울이니, 대략 14살 이후 아랍 침략의 실상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 후 성인이 되어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직접 기록했고, 그것이 ‘니끼우 요한의 연대기’입니다.”

‘니끼우 요한의 연대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니끼우 요한의 연대기’는 아랍 군대가 이집트를 침범한 역사만 기록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창조부터 시작해 아랍의 이집트 정복까지, 이집트의 역사를 시대 순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122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파라오의 역사들과 이집트에 대한 외세의 침입 등 수많은 역사적 내용들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랍 군대가 이집트를 침범한 역사는 맨 마지막 부분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랍 역사학자들 가운데는 아랍 침략의 역사를 기록한 경우가 없는지요.

“있습니다. 알 와끼디, 알 발라드리, 이븐 압둘 하칸, 앗파바리 등 여러 무슬림 역사학자들이 아랍 침략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8

세기 후반 혹은 9세기 사람들입니다. 즉 사건 발생 이후 1.5세기 혹은 2세기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역사 기록은 모두 이슬람 편향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랍의 입장에서 그들이 저지른 악행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이슬람을 미화한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이 이집트에 들어옴으로써 이집트가 개화되었다’는 등의 서술입니다.

이집트에 얼마나 찬란한 파라오 문명과 그레코 로만 문명이 있었습니까? 이슬람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한 일은 그 찬란한 고대 문화를 파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감추고 왜곡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400년 전의 기록인데, 어떻게 오늘까지 전래되었나요.

“니끼우 요한의 연대기’는 처음에 콥트어 혹은 그리스어로 기록됐습니다. 그 뒤 아랍어로 번역되고, 아랍어로 번역된 것이 1602년 에티오피아어로 번역됐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사본이 19세기에 영국 원정대에 의해 발견돼 1883년 프랑스어로 번역됐고, 1916년 영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는 아랍어로 재번역됐습니다. 현재 이 연대기의 에티오피아 사본이 영국과 프랑스 박물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은 인터넷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랍 군대가 이집트에 들어오는 과정은 어떠했나요. 그것이 기존의 이슬람에서 말하는 내용과 어떻게 다른가요.

“아랍 군대가 이집트에 들어오는 과정은 분명 ‘침략’이었습니다. 이슬람은 그것을 ‘개화 혹은 계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거짓입니다.

실제 전투가 이집트 전역에서 있었고, 많은 일반 백성들이 잔인하게 살해됐으며, 전국 중요 성채에서 수개월간 항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니끼우 요한의 연대기’에서 쉽게 발견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무슬림은 아랍의 정복 과정이 평화적이라고 하고, 심지어 당시 콥트 기독교인들이 아랍 군대를 구원자로 여기고 환영했다고 합니다. 이집트 무슬림도 그렇게 말하고 한국의 친이슬람 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당시 이집트가 동로마(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심한 박해를 받은 나머지, 아랍 군대와 협력해 동로마 군인들을 이집트에서 쫓아내었다고까지 주장합니다.

‘니끼우 요한의 연대기’를 보면, 이

집트 콥트 교회와 교인들이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로마 제국의 박해가 사실이라도, 콥트 교인들이 아랍 군대를 환영하거나 그들과 협력하여 동로마 군인들을 쫓아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객관적 표현으로는 동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이집트 사람들이 아랍 군대에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집트의 종교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집트는 인구의 90%가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집트의 헌법 2조에 ‘이슬람이 국가의 종교이며, 이슬람 샤리아법이 법률의 주원천이다’고 돼 있습니다. 샤리아법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무슬림 이외의 나머지 10%는 콥트 기독교인입니다. (콥트 교회의 통계로는 15-25%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헌법에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의 예배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종교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전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노방 전도를 할 수 없고, 무함마드나 꾸란을 비판하는 경우 ‘종교모독법’에 저촉되어 감옥에 가는 실정입니다. 기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새롭게 예배당을 짓는 것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집트는 원래 기독교 국가였는데, 어떻게 지금처럼 이슬람 국가가 되었을까요.

“이집트 이슬람화의 시초는 아랍 군대의 침략에 대한 항전이 패배로 끝났을 때부터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641년에 항복하는데, 그 이후 점차 이슬람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이슬람화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항복 이후 이슬람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시대, 압바스 왕조 시대, 파티마 왕조 시대 등을 지나면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파티마 왕조 시대(10세기)에는 인구의 절반 가까이 콥트 기독교인이었고, 맘루크 왕조를 지나면서 인구의 2/3 이상이 이슬람을 받아들여게 됩니다.”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가 되었다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말인데, 그들의 개종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날 무슬림은 이집트에 강제 개종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콥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집트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말은 이슬람의 포교를 위해 만들어낸 완전한 거짓말이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개종의 원인은 복합적이겠으나,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기독교인들이 내는 ‘지즈야’라는 세금이었고, 두 번째는 점증하는 ‘박해’였습니다.”

이집트 사막 사하라 무슬림 - ‘지즈야’란 무엇인가요.

“이슬람이 정복한 땅에 사는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이 죽음을 면한 대가로 이슬람 통치자에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슬람은 그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셋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슬람을 선택하든,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의 경우) 지즈야를 지불하든, 아니면 죽음을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요구 조건에서 지즈야는 죽음을 대신 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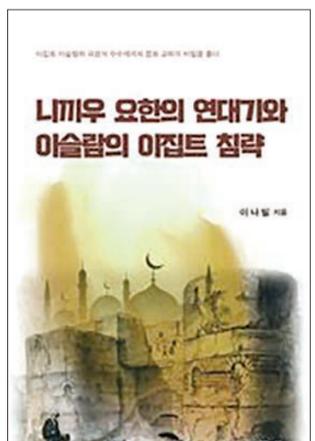
꾸란에서도 기독교인과 유대인들로부터 지즈야의 징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굴복하여 수모를 느끼면서 지즈야를 지불할 때까지 하라(9:29)’. 이처럼 지즈야는 ‘굴복하여 수모를 느끼면서’ 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슬림은 이 지즈야를 ‘무슬림이 자카라는 세금을 내듯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 국가에 정당하게 지불하는 세금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슬람 포교를 위한 거짓입니다.”

지즈야의 액수는 얼마였나요.

“이집트 콥트인들에게 부과된 지즈야는 1년에 금화 2디나였습니다.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당시 2디나는 일반 시민 연봉의 40%였다고 합니다. 1천만원을 연봉으로 받는다면, 4백만원을 이슬람 통치자에게 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의 입장에서, 그 액수가 엄청나게 무거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콥트 기독교인들은 과중한 지즈야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도망가거나 수도원으로 도피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슬람 통치자들은 주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만들게 하고,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도망하다 발각된 사람들의 몸



▲책 <니끼우 요한의 연대기와 이슬람의 이집트 침략>(이나빌, CLC, 208쪽, 10,000원).

에 문신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탄압이 있던 차에, 725년 기독교를 떠나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지즈야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법령이 내려집니다. 그러자 많은 수의 기독교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2년 동안 2만 4천명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이슬람 통치자가 지즈야를 악착같이 강요했나요.

“이슬람 통치자의 최고 관심은 지즈야 징수와 수탈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니끼우 요한의 연대기’ 여러 부분에서 잔인하게 세금을 거두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즈야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팔기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사람의 지즈야를 살아있는 사람에게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마을에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이 있을 경우, 개종한 사람 숫자 만큼 지즈야를 적게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람 통치자는 그 마을의 지즈야를 원래 액수 그대로 내도록 강요했습니다.

따라서 개종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남아 있는 콥트인들에게 지즈야의 부담이 커졌고, 그로 인해 개종의 대열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인 박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조직적으로 진행됐고,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더해졌습니다. 이슬람 통치자들 개인에 따라 박해가 줄어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통치자들과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콥트 기독교인들을 2등 시민으로 차별하며 여러가지 종류의 핍박을 했습니다. 14면에 계속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2018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혁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 (한국과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9월 27일 개강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 M.A 석사과정 | 48학점
-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WWW. CTUIA.ORG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L.A, CA 90057



‘미스터 션샤인’, 지역만리 조선 땅 밟은 첫 선교사들

우리나라 첫 선교사를 만나다(2)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는 ‘선교사’가 극의 주요 흐름을 좌우했다. 종살이하던 주인공 ‘유진 조이(이병헌)’은 어린 시절 쫓기다 선교사 ‘오섭’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해병대 대위이자 미 공사관 영사대리로 고국에 돌아온다.

그러다 선교사가 의병활동을 도우려다 죽음을 당하자, 그를 은인으로 생각하던 주인공 유진은 진상을 파헤치면서 의병들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된다. 그런가 하면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던 시대, 여자 주인공 ‘고애신(김태리)’은 선교사가 세운 학당에서 여선교사로부터 영어를 배우게 된다. 이들 외에도 구동매(유연석), 김희성(변요한), 쿠도 히나(김민정), 이완익(김의성) 등이 등장해 구한말 조선의 생활상 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구한말 선교사들은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의 촛불 같던 조선인들에게 등불 같은 존재였다. 왕인 고종도 선교사들을 신뢰했고, 선교사들은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했다. 모처럼 대중매체에서 그 시대 기독교를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이 때, 구한말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들어온 주요 선교사들의 이야기들을 책과 문헌, 영상 등으로 돌아보고자 한다.

‘조선에 온 첫 번째 선교사와 한국 개신교의 시작 이야기’라는 부제를 공통적으로 달고 있는 책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이상 IVP)》는 ‘우리나라 첫 선교사’로 가장 잘 알려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일대기로, 두 선교사가 이 땅에 온 1885년 4월 5일부터 130년째 되는 지난 2015년 개정판으로 나왔다. 두 책은 모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만열 박사가 번역했다.

《언더우드》는 아직 우리나라가 ‘조선’이던 이 땅을 처음으로 밟은 선교사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元杜尤, 1859-1916)의 일대기를, 그와 함께 평생 선교한 아내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Lillias Horton Underwood)가 기

록한 것이다. 아내 언더우드 선교사는 당시 조선의 풍속과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언더우드를 통해 기독교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 접근하여 성장하고 있는지를 주시하며 서술하고 있다.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평가했다. “언더우드의 전 생애 가운데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 즉 하나의 지배적인 성격이 바로 사랑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교파나 인종이나 시간이나 장소와 같은 좁은 테두리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무한히 넘쳐흐르는 위대한 사랑이었다. 수많은 심령들이 그에게 다가와 사랑의 마음으로 인격적인 헌신을 한 것도, 또 그가 전 생애에 걸쳐 ‘타오르는 횃불(torch of fire)’이라 불리면서 일관되게 살아가게 한 것도 그의 이러한 사랑이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언더우드는 뉴브리튼워 신학교 재학 도중 인도 선교를 꿈꾸다, 이제 막 문호를 개방한 ‘은둔의 나라(the Hermit Kingdom)’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서둘러 그곳에 갈 사람을 물색하다, ‘왜 너 자신이 가지 않느냐?’는 가슴 속 메시지에 응답했다. 20세기 최고의 선교 성공 사례가 된 ‘한국 기독교’의 시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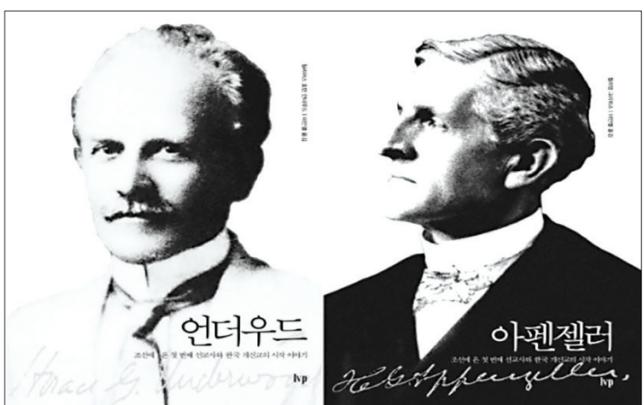
당시 시대상에 대한 묘사를 읽다 보면,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속 배경이 얼마나 ‘보정’을 거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언더우드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아, 그의 보고서를 읽은 사람들은 조선을 ‘지상낙원’으로 착각할 정도였다고 한다.

언더우드는 한국에 도착한 뒤 많은 시간을 한국어 공부에 할애했고, 다행히 왕실도 외국인들에게 호의적이었다. “우리는 한국어를 조금 알게 되자마자, 바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골목길이나 셋길로 나갔다. 우리는 책을 한 권 꺼내 읽기 시작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어 질문하면 우리는 그 책과 진리와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는 먼저 우리 모두의 공통된 기반을 찾아, 점차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한 노력으로 첫 국내 세례자, 노준경이 탄생했다. 알렌 박사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자신은 영어를 배우면서, 그의 서재에서 흠뻑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고 진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가까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고백, 1886년 7월 11일 비밀리에 세례를 받게 된다. 그가 열었던 첫 성경 훈련반 사람 수도 일곱, 첫 세례교인반도 일곱, 첫 졸업반 의사 수도 일곱, 처음 장로회신학교 졸업생도 일곱이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외에도 선교 활동을 위해 1년간 했던 의학 공부를 통해 광혜원(廣惠院)에서 진료와 간호를 맡았고, 후일 이름을 바꾼 제중원(濟衆院) 산하 의학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1886년 고아원(후일 경신학교)을 설립하고, 1887년 벽지전도부에서 시작했다. 그가 온지 3년 뒤 한국에 왔던 릴리어스 호튼 선교사와 1889년 결혼한 뒤, 건강이 악화돼 미국으로 돌아갔다 3년만에 돌아온다.

1897년 서울 새문안교회를 설립하고, 1889년 문서선교를 위한 기독교 서회를 창립한다. 심서 번역에도 힘썼으며, 이를 위한 《한영사전》과 《영한사전》도 출간했다. 1900년에는 기독교청년회(YMCA)를 조직했고, 1915년 고아원에서 발전한 경신학교에 대학부를 만들고 교장으로 섬겼는데, 이는 연희전문학교가 됐다. 병을 얻은 그는 1916년 미국으로 돌아가 생을 마감했다. 한국 개신교복음주의선교회 연합공의회는, 그의 죽은 뒤 이런 조사를 남겼다. “31년 동안 그는 우리의 모든 연합 조직과 기관에서 지도적이고 주된 정신적 위치를 차지했다. 이 선교지와 관련된 일의 대부분이 시작되고 성공한 것은 그의 풍부한 지략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에 힘입은 바 크다.” 《아펜젤러》 역시 언더우드와 함께 제물포에 같은 날 상륙했던 헨리 게하르트 아펜젤러(Henry Gerhart Appenzeller, 亞扁薛羅, 1858-1902)의 활동을 《은자의 나라, 한국(Corea, The Hermit Nation, 1882)》의 저자이자 동양학자·목회자



책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였던 윌리엄 그리피스(William Elliot Griffis)가 썼다. 아펜젤러 역시 언더우드처럼 드루 신학교에 입학했다가, 졸업도 하기 전 감리교회 외국인선교부에 ‘조선 선교에 헌신할 것’을 고백했다. 1885년 1월 신학교를 졸업하고 엘라 닷지(Ella Dodge)와 결혼한 뒤, 즉시 조선으로 떠났다. 아펜젤러는 신학문에 뜻을 둔 청년들을 모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인 ‘배재학당(培材學堂)’을 1886년 6월 8일 설립했다. 또 새문안교회와 더불어 한국의 ‘어머니 교회’인 정동감리교회를 1887년 10월 9일 세웠다.

또 우리나라 풍속과 인정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여행을 다녔다. 1889년에는 최초의 월간지 《교회》를 발간, 국민들에게 민주독립 사상과 민족 의식을 불어넣고자 했다. 서재필·윤치호·이상재 등이 만든 독립협회에도 초기부터 관여했으며, 문서운동과 심서번역에도 힘썼다.

아펜젤러는 1902년 8월 목포에서 열리는 심서번역위원회 참석차 배를 타고 가던 중, 군산 앞바다에서 다른 배와의 충돌사고로 순직했다. 증언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까지 조선인 동행자를 구하려다 함께 익사했다고 한다.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아펜젤러의 뒤를 이어, 그의 자녀들도 선교에 뛰어 들었다. 서울 정동 23번지에서 태어난 아펜젤러 2세(Henry D. Appenzeller)는 아버지의 죽은 후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낸 뒤 한국을 찾아 1920년 배재학당 제4대 교장을

지냈다.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눈감아 주다 곤욕을 치르기도 한 그는 1939년 일제의 탄압을 견디다 못해 교장직을 내놓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1953년 숨을 거두면서 “내가 죽으면 한국 땅에 묻어 달라”고 한 유언에 따라, 이듬해인 1954년 10월 18일 지금의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안장됐다. 그의 누나이자 아펜젤러 선교사의 맏딸인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Alice R. Appenzeller)도 1909년 웨슬리아 대학 졸업 후 자진해 한국 땅을 찾았다. 평생 독신으로 지내며 이화학당 교수가 됐고, 1925년부터 18년간 교장을 맡았다. ‘이화의 상징’이던 아펜젤러는 1950년 2월 20일 예배인도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역사인 이만열 박사는 아펜젤러에 대해 “여느 선교사들보다 깨끗한 이미지를 남긴 44년의 짧은 생애는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마감됐지만, 아펜젤러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고 간 사역에 독자들이 조금이라도 부채의식을 느낀다면, 그의 짧고 깨끗한 삶이 한국교회에 새로운 선교 열기와 사명 수행의 힘찬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아펜젤러는 제물포에 도착한 뒤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남겼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무덤의 빛장을 산산이 부수고 부활한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어 있는 굴레를 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대용 기자

13으로부터 계속

먼저 박해는 이슬람이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어떻게 보고 취급하는가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이슬람은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짐미’라고 불렀습니다. ‘짐미’는 이슬람의 통치 아래 하대받고 천대받는 2등 시민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구별되는 색깔의 옷을 입어야 하고, 머리카락도 앞머리를 밀어야 하며, 허리에 는 허리띠를 띠어야 했습니다. 무슬림은 말을 타고 자랑스럽게 여행하는

반면 기독교인은 말을 타는 것이 금지되고, 당나귀를 타야 했습니다. 무슬림이 길을 지나면 기독교인은 길을 비켜주어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목욕탕에 들어갈 때는 목에 십자가를 달거나 심지어 방울을 달아야 했습니다. 둘째, 이슬람 통치자들의 박해가 컸습니다. 무슬림 통치자 가운데는 노골적으로 기독교인을 싫어해 그들에게 벌을 주고 투옥하며 개종을 강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관직에서 쫓아내고, 집들을 파

괴하며 불질렀습니다. 셋째, 이슬람으로 개종한 서민들의 박해였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무슬림 숫자가 과반수가 넘고 그들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자, 그들 스스로 이웃의 콧수염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친이슬람 학자들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이란 표현이 중세 유럽 교회가 거짓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이란 구절이 꾸란이나 하디스에 직접 기록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중세 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구절이 이슬람의 본질과 침략의 역사를 한 마디로 가장 잘 묘사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꾸란과 하디스에는 기독교인과 유대인들과의 지하다 전쟁을 명령한 구절이나 잔인한 살해의 구절들

이 준비합니다. ‘니키우 요한의 연대기’만 봐도, 개종을 위해 칼로 위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IS의 행동이나 세계 각지에서 터지는 테러분자들의 소행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인 무슬림 형제단의 심벌을 찾아 보십시오. 그 심벌에 칼과 꾸란이 양쪽으로 배치돼 있음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본질적 모습은 바로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이 틀림없습니다.” 《계속》 이대용 기자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성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위(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학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학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사역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16)- 이순희 목사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사역자들의 영광이요 권세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질적인 사역의 기쁨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흔하지 않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다. 기자는 이순희 목사를 만나며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렸다. 이순희 목사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기쁨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주를 향한 뜨거운 가슴으로 사는 이순희 목사(백송교회)를 인터뷰하며 보낸 한 시간은 그야말로 뜨거운 시간이었다. 이순희 목사는 너무나 바쁜 사역의 일정 때문에 가족과도 떨어져 있고 세상적 재미나 인간적 휴식도 거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활력이 넘쳤다. 이순희 목사의 언어, 표정 그리고 눈길 속에 거룩한 에너지가 가득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며 주님을 섬기는 이순희 목사가 부러웠다.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순희 목사의 삶과 사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들여 보았다.

갑자기 찾아오신 주님

이순희 목사는 결혼 전까지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갈망하는 삶이었다. 열심히 살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 준비된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다.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환청과 환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었다. 돌이켜보니 엄청난 영적 도전이었다. 너무 피곤하고 어려워 견딜 수가 없었다. 하루 만이라도 마음에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고통의 날들이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여서 문제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그야말로 혼돈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이 교회에 나가자고 권유를 했다. 힘들어 하는 아내를 위해 내린 결단이었다. 신앙인이었던 이모님이 조카며느리의 상황을 듣고 전도를 했고 시어머니도 남편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새댁의 교회 출석을 응원하고 권면했다.

성령님 능력을 체험하고

이렇게 찾은 교회에서 이순희 목사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너는 죄인이다!” 세 번 반복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아했다. 나는 착하게 살아 왔는데 왜 죄인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다시 음성이 들렸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제 보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라고 하신 요한복음 16:9절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요동치던 마음이 잠잠해졌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온전하지는 못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에 휩싸이다가 또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아픔을 반복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다가 다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세월 속에서 더욱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강력한 은혜를 체험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다. 당시 출석했던 개척교회에서 40일 기도회에 참석하며 큰 은혜를 받고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시작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담임 목사님이 복음 성가 가수가 되라고 권면하셨다. 이미 피아노 레슨을 하는 등 음악적 소양이 있기에 그리 어렵지 않게 ‘고난이 유익이라’는 곡을 타이틀곡으로 음반을 출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특히 99년에 대형 콘서트를 가졌는데 콘서트 팸플릿이 미국까지 전해져, 팸플릿을 보고 2000년에 애틀란타 연합 집회에 초청을 받는다. 신현균 목사(주강사), 찬양 가수로 이순희 집사를 초청한 것이다. 그런데 그 초청에 응할 수가 없어서 양해를 구했더니 의외의 답변이 왔다. “어떻게 하면 오실 수가 있나요?” 이에 이순희 집사는 “간증집회를 허락 하시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애틀란타제일장로교회(서삼정목사)등 여러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인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반응도 좋았다. 심지어 즉석에서 부흥회 인도를 요청받고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시작된 사역의 폭이 넓어지고 말씀 사역에 대한 갈증을

느끼면서 자전 타전으로 이순희 목사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2006년 서울신대 대학원에 입학하여 신학을 공부했다. 신학교에서 성령 사역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은사와 능력 사역을 신학적으로 조명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이순희 목사의 사역은 다양한 모습으로 확장되었다. 2000년 5월 미국 집회를 마치고 극동방송 대담프로에 출연하는 것을 계기로 국내 사역이 시작되었다. 물론 집사로 시작된 집회 사역이었다. 우선 경상도 지역을 순회하며 집회를 인도하였다. 대구, 마산, 창원, 울산 등지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특히 대구에서는 선교 센터를 세워,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은혜 받은 이후의 영적 돌봄을 하였다.

이순희 목사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사역을 지향한다. 아울러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회복의 축복을 누리도록 돕는다. 회복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 사랑의 회복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누리므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

이순희 목사는 가족들과 주변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 이순희 목사의 사역은 올인 사역이다. 가정은 물론 자신의 삶을 돌볼 여유가 없다. 매일 드리는 예배와 기도 사역 그리고 젊은이들을 세우고 제자화 하는 사역으로 너무 바쁘다. 가족을 돌볼 여유가 없다. 그런데 남편 장모와 두 아들은 이순희 목사의 든든한 후원자이다. 가족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다.

비전과 기도의 제목: 하나님과 놀고 싶어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기자는 이순희 목사에게 비전과 기도의 제목을 물었다. 기자가 간주된 이순희 목사의 기도 제목은 이렇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 이순희 목사는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 더욱 확장되기를 원한다.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 기도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순희 목사는 세계 곳곳을 누빈다. 둘째로 “참된 제자들을 세우게 하소서!” 라고 기도한다.



이순희 목사

이순희 목사는 사역을 다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양성하려 한다. 지금 사역의 현장마다 5명 정도의 신학생들을 대동한다. 사역의 현장을 보여 주며 기도의 훈련, 예배의 훈련, 사역의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순희 목사는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신학생으로 추천한다. 사역자들을 양성한다. 아울러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현재도 매 학기마다 15명의 신학생에서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100여명의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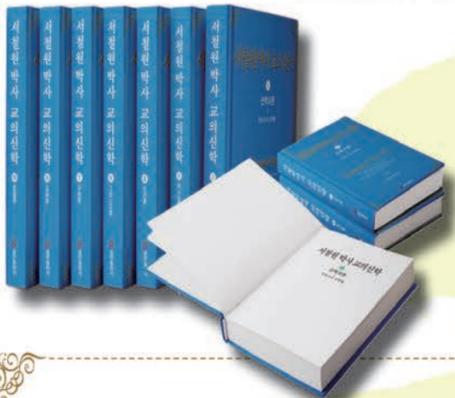
셋째로 “예수님으로 살게 하소서!” 라고 기도한다. 이목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훈련”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순희 목사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양육하고 세워가는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훈련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훈련이다. 자기를 없애야 주님이 보인다. 이순희 목사는 자신의 시간, 물질 등을 다 내려 놓았다.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기는 삶을 산다. 이것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믿기 때문이다.

넷째 “변화를 일으키는 영성 혁명이 일어나게 하소서!” 라고 이순

희 목사는 기도한다. 왜냐하면 이순희 목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의 현장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믿는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변화가 된다고 믿는다. 이순희 목사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순희 목사는 예배에 집중한다. 예배는 변화의 현장이요, 치유의 현장이요, 기적의 현장으로 믿고 예배사역에 혼신의 힘을 모은다. 다섯째 이순희 목사는 교회 갱신을 위해 기도한다. 이순희 목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들을 바라본다. 교회가 성령에 관심이 없다. 영적인 예배가 아닌 혼적 차원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고, 헌신과 봉사가 없는 무기력한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이 목사는 교회들의 갱신을 간절히 기도한다. 이순희 목사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새로운 삶의 능력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다. 기도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비전을 좇아 전 세계에 700 성전을 세워 기도온의 300용사같은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늘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다. 강태광 편집위원

서철원 박사 교의신학 전 7권 완간!

전통적 개혁신학 입장에서 체계화한 교의신학의 결정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조직신학 책의 완성판

서철원 교수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B.A), 동 대학원 (M.A), 총신대 신학대학원,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대학원 (Th.M),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Dr. Theol)를 졸업하였다.

자유대학교 신학박사 학위논문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중보직」(The Creation-Mediatorship of Jesus Christ)은 20세기 100대 신학저술 모음인 Theologicum에 수록되었다.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귀국하여 개혁신학연구원 교수, 총신대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대학원장, 신학대학원장, 부총장 역임), 한영신학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은퇴하였다.

저서로 『교리사, 『복음과 율법의 관계』(한글 및 일어번역판), 『성령신학』, 『하나님의 구속경륜』, 『신앙과 학문』, 『복음적 설교』, 『하나님의 나라』, 『문화명령』, 『종교다원주의』, 『창조신앙』, 『기독교문화관을 출판하였다. 『언약사상에 대한 새로운 사상』(A New Thought on the Covenant Idea, contributed to the International Reformed Theological Journal of the Netherlands) 외 다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서철원 교수

- I. 신학서론_ 믿음으로 신학함 304면 / 22,000원
 - II. 하나님론_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사역 392면 / 26,000원
 - III. 인간론_ 인간, 하나님의 형상 416면 / 29,000원
 - IV. 그리스도론_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의 구원사역 296면 / 22,000원
 - V. 구원론_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됨 264면 / 20,000원
 - VI. 교회론_ 교회, 하나님의 집 176면 / 15,000원
 - VII. 종말론_ 창조경륜의 궁극적 성취 280면 / 20,000원
- 1세트(전7권) 154,000원**



가을에 떠나는 지중해 크루즈여행

10일 코스 10월 31일 출발, 11월 9일 도착

\$2199



스페인 | 프랑스 | 이태리 | 몰타

4000여명 이상의 탑승이 가능한 초호화 크루즈에서 무료로 즐기는 선내 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7개의 식당, 사우나, 수영장 등) 각 기항지 마다 여행전문 가이드 동행

\$2199 (2인 1실 기준-항공권, 크루즈 비용, 모든 세금 포함)
*수익금의 일부는 <사랑의 담요>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Costa Fascinosa
2011년 건조한 114,500톤급 크루즈

우리방송과 동서크루즈가 함께 하는 지중해 크루즈

서지중해 크루즈 코스 중에서 보석같은 코스로만 준비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랑스
마르세유

이태리
사보나, 나폴리,
카타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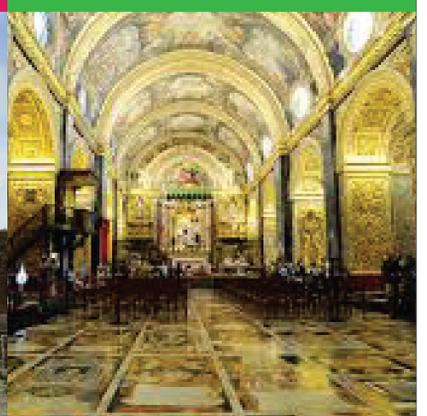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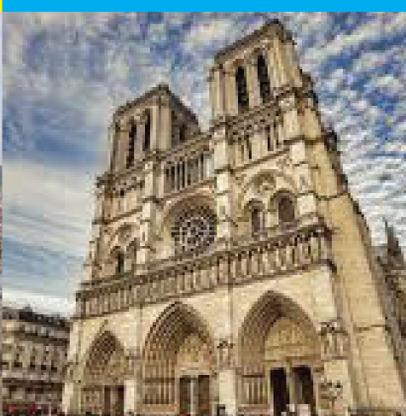
몰타
발레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밤블라스 거리, 몬주익 언덕, 구엘공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까달루냐 광장 포함

프랑스, 마르세유 지중해 최대 항구, 노틀담과 가르드 사원, 최초의 석조다리 아비뇽 다리, 14세기 구교황청 포함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인 나폴리, 시칠리아, 폼페이 유적, 르네상스 건축물의 도시 사보나 포함

지중해의 황금섬!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황금빛 찬란한 성요한 성당 관광 포함!



그동안 망설이셨던
지중해 크루즈
이번엔 떠나시죠!

빈민층 아이들과 노약자를 위한 <사랑의 담요> 기금 모금을 위한 <지중해 크루즈> 크루즈 전문여행사인 동서크루즈와 AM1230 우리방송이 함께 준비했기에 더욱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십니다.

2011년에 건조한 Costa Fascinosa 선상에서의 환상적인 10일의 크루즈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 \$2199 (2인 1실)-항공권, 크루즈, 모든 세금 포함 ✓ 각 기항지 마다 여행전문 가이드 동행

크루즈
문의 예약

동서 크루즈 & 여행사
213.378.0765

*선박,항공,기차,버스 등 교통 수단이나,현지 날씨에 의해서 일정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입/출항 조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이에 따른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11 S. Vermont Ave. Ste 214, Los Angeles, CA 90005